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선인장 이미지를 통한
자아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학 과

김 미 영

선인장 이미지를 통한

자아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학 과

김 미 영

인 준 서

김미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과정인 2005년부터 2007년에 제작된 일련의 작품들 중 석사학위 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표현 형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기에 예술에 직, 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과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연을 대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간다. 본인도 자연으로부터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삶의 준칙과 생명감에 대한 감동을 느끼고 이것들은 나아가 본인 작품의 기본적 배경이 되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성취를 위한 욕망과 그로 인한 과도한 경쟁 속에 살면서 정서적 결핍과 인간 소외 현상을 경험한다. 본인은 식물 중에서 특히 선인장이 지닌 형태의 특징과 의미에 관한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현대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 소외와 갈등, 나아가 나 자신의 자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과학문명에 의한 급속한 Technology의 발달을 통해 미술은 첨단 매체를 흡수하면서 표현 방식을 확장하였다. 판화의 영역 또한 컴퓨터와 같은 첨단 매체와의 결합 방식을 통해 그 표현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작품 표현 방법에 있어 디지털 표현 방식에 의한 현대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전통적 판화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석판화와 디지털 프린트 방식의 매체 간 결합을 시도할 때 진행과정에서 두 가지 매체가 지닌 조형적 특성

과 디지털 표현 방식을 본인 작품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각각의 방식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조형적 효과를 추구하였다.

선인장은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식물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와 외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도시 환경 속에서 겪은 본인의 내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소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표현을 위하여 작품은 전체적으로 흑백의 모노톤과 변형된 공간과 선인장과의 낮선 결합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혼돈과 절망, 존재 가치에 관한 의미를 동시에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내용적 측면	3
1) 자연과 인간	3
2) 일상적 내적 갈등	5
3) 선인장의 생물학적 특징	7
2. 조형적 측면	8
1) 관화에 있어서의 매체 활용	8
2) 공간	11
3) 색채	12
3. 작품분석	15
III. 결론	31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Cactus200703, 90X55cm, Lithograph, Collagraph, Digital print, 2007	15
[작품 2] Cactus200705, 90X60cm, Lithograph, Collagraph, Digital print, 2007	17
[작품 3] Cactus200704, 90X60cm, Lithograph, Digital print, 2007	19
[작품 4] Cactus200701, 60X90cm, Collagraph, Digital print, 2007	21
[작품 5] Cactus200702, 180X54cm, Lithograph, Digital print, 2007	23
[작품 6] Cactus200717, 90X60cm, Lithograph, Digital print, 2007	25
[작품 7] Cactus200508, 90X60cm, Collagraph, 2005	27
[작품 8] Cactus2005010, 60X90cm, Collagraph, Chinecolle, 2005	28
[작품 9] Cactus2006007, 90X60cm Collagraph, Digital print, 2006	29

I. 서 론

매스 미디어와 통신, 과학 기술 발달의 극대화와 현대 사회의 급격한 확장, 복잡성의 가속화는 인간 내면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과열된 경쟁의식 속에서 현대인은 자아 정체성 상실의 문제와 인간을 소외시키고, 물질만능주의로 이끌어 그 불안감은 더해가는 것 같다. 오늘날 도시의 삶 속에서 인간은 획일화된 기계 부품처럼 느껴진다. 반복되어진 삶 속에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사회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흡수된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현대사회의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 내지 상실감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본인은 현대사회가 지닌 공허함과 일상의 지루함을 작품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탈피하고자 본인의 삶에 대한 의지를 선인장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본인의 생활공간 영역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내용적 측면으로 자연과의 교감은 현실에서 겪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자아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동·서양의 자연관을 배경으로 현대 자연관을 통해 자연과 동화되는 체험을 느끼며, 작품의 제작 동기가 되는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을 자연의 일부분인 식물들 중 선인장 형상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자아의 내적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본인의 조형적 분석을 위하여 이미지와 색채, 공간에 대해 서술하였다. 선인장의 소재를 표현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기법인 석판화, Collagraph와 함께 현대 판화의 디지털 프린트

방식과의 결합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조형적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작품의 형성 배경과 함께 조형적 분석을 통해 자아의 내적 심리 분석과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자연과 인간

자연은 무언의 정연한 질서를 가진 인간 본래의 터전이며 인간은 자연의 섭리의 일부분인 하나의 생명체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가며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연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주며 나아가 인간의 미의식 내지는 예술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예술 활동의 표현 대상으로 형상화 되었으며 인간은 자연을 탐구하며 내적 체험과 감정들을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해 왔다.¹⁾

동양의 자연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과 대립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으로써 자연과 인간은 일체이며 인간의 참된 면은 자연과 합일(合一)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본 동양의 사상에서는 자연을 ‘기(氣)’로써 이루어지고 인간과 동등한 역량을 조화시키고, 만물을 감싸고 창조하는 생명력을 가지는 공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멈춘 듯 보이지만 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살아 숨 쉬며 끊임없는 운동에 의해 삶이 유지되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때 감도는 유형, 무형의 에너지를 ‘기(氣)’라고 부른다. 노자(老子)는 기(氣)를 ‘도(道)’가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과정 중 하나의 고리로 도(道)에서 나온다고 하였다.²⁾ 이와 같이 동양적 자연관은 천인합일

1)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p.5

(天人合一)이라는 사상이 형성되면서, 모든 예술적 의미나 사조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연을 이상향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동경과 일체화를 근간으로 하는 자연관을 지속 시켜왔다.

서양의 자연관은 목적론적 자연관과 기계론적 자연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목적론적 자연관에서는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았고, 기계론적 자연관과의 전통을 수립한 원자론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였다.

서양의 자연관에서는 자연이란 인간과 대립하는 존재 즉, 비인간을 말하며 인간 정신에 대립된 외적 경험에 의해 성립된 개체의 전부를 일컫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연을 정복 혹은 쟁취의 대상으로써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며,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관찰과 실험 대상으로써 자연을 파악하고 연구하였다. 서양에서는 이렇듯,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예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과의 융화보다는 관찰과 실험의 대상물로서 객관적인 자연에 그 의미를 두고 성립되어져 있다.³⁾

목적론적 자연관은 자연이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과 만물을 포괄하는 일종의 주체로서의 자연 또는 근원으로서의 자연이라면, 기계론적 자연관이 자연은 눈앞에 현존하는 인식과 노동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은 내면세계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예술은 자연과 인간의 중계자 역할을 한다. 자연을 의식의 상관물로 파악하고 인간의 대체적 형상으로 보아 개인의 정서를 이입한 동양의 자연관에서처럼 본인의 자연을 인간의 의식을 비취볼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본인의 자연을 통한 끊임없

2) 백세명, 「동학 사상과 천도교」, 서울:통학사, 1956, p.37

3) 정혜진, 「자연의 단순화와 반복성을 통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7, p.5

는 자아 탐구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감동과 충동으로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 미학은 다시금 자연 내지 자연미에 주목한다. 현대의 예술가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미를 표현하며 자연의 형태를 빌려 감정의 표현과 공간 이미지를 나타내고 암시적 존재의 상징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예술가들은 자연을 표출함에 있어 단순히 외적인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조형의지에 따라 변형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자연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생명력은 삶을 향한 원초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삶에 대한 욕구는 자연속의 모든 만물이 깃들어 있으며 자연을 바탕으로 한 내적 연결고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생명력은 생물학적인 생명의 힘이라 한정짓지 않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이나 삶에 대한 욕구로 표현한다. 그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은 자연의 일부분인 식물들 중 선인장의 형상을 본인 작품 속에 나타내어 자아의 내적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2) 일상적 내적 갈등

미디어 시대에 미적 개념이 확장됨으로써 작업 속에 일상적 요소, 즉 자신들의 생활 세계와 작업 환경은 물론이고,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미적 영역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⁴⁾

예술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일상성에 대한 문제는 인간 삶의 의미와 관계를 보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술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겪고 생각하고 느낀 바를 창조적이고 표현적인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표출하고자 한다.

4) 김광명, 「예술에 대한 사색」, 학연문화사, p.64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공허함이나 고독감보다 더욱 기본적인 정신 병리인 ‘불안’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공허나 고독감도 불안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심리적인 고통이나 곤경과 결부될 때에 한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불안감은 현대인의 정신적 특징이다. 기술문명이 지배하고, 시시각각 들어가며 변화하는 미디어 매체에 길들여진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문명의 편리와 이익은 누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생활 속에 큰 변화 없이 반복되어 돌아가는 기계의 부품처럼 반복적이고 지루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켜워 벗어나려 하면서도 그 일상에 놓여 있는 것들을 놓칠까봐 불안함을 느끼며 생활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일상 속의 불안함은 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상 속에서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매체들이나 주변 환경속의 경험들은 내적 자아를 혼란과 두려움으로 무게를 두게 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감정들에 의적으로는 강한 의지로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그 가치들에 대해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두려움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 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인의 일상적 삶에 있어 지난 3~4년은 이러한 내적 갈등의 혼란이 큰 시기였다. 20년이 넘게 살아온 나의 도시를 떠나 다른 환경의 공간속에 들어왔을 때 본인에게 밀려오는 심리적 압박은 본인의 정체성과 의지에 혼란을 가져왔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낯선 공간들과 환경은 마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듯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본인은 이러한 일상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공허감 등의 내적 감정들을 극복하고 본인 스스로가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위해, 그림으로 표현되어지는 나의 내적 의식은 삶의 활력으로서 치유적 의미를 갖고 있다.

5) 롤로메이 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백상청 역, 문화출판사, 1984, p.35

그러므로 본인은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에서 그 폐단만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잊어버리고 퇴색되어가는 본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의 사유로 인한 정서적 환기가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일상 속에 자연으로부터의 식물 중 선인장을 대상으로 자아 내적 심상을 분석해 보았다.

3) 선인장의 생물학적 특징

선인장(Cactus)이란 일반적으로 선인장과 식물을 일컫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던 조화나 분화, 수목 등의 식물과는 판이하게 이미지가 다른 분과이다. 형태적으로 다육식물 속에 선인장이 포함된다.

선인장의 생물학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줄기, 잎, 뿌리 등이 비대하여 다른 식물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사막 등의 건조지나 고산 지대에서도 잘 견딘다. 선인장이 덥고 비도 오지 않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비가 한번 올 때 마다 몸에 많은 물을 저장해 두며, 몸속에 저장해둔 물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있으며, 뜨거운 햇살로 인해 많은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인장 잎이 점점 자곡 좁게 변해서 가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시는 공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만 자기의 가시에 접촉하면 달라붙는 자기 보호적 의미이다. 이것은 본인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막 같은 존재로서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본인은 선인장의 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특징을 통하여 내적 자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인장의 내부에는 강한 생명력이 흐르는 것처럼 본인 삶 또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되찾고 싶은 자유로운 이상을 선인장의 생명력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것의 내적 특성들은 현대 물질문명의 풍

요 속에서 살아가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고 소외되어 가는 심상(불안감, 소외감, 외로움, 무의미, 상실감)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매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인장은 본인의 내적 자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소재로서 등장하게 된다.

선인장이 지니고 있는 내적 특성은 광야에 서있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다. 즉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하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벌이거나 수분 부족 등의 고난을 견디는데 이는 고독한 인간의 황량한 광야와도 같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여러 심상과 일치하는 면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상의 수동적이고 사소한 일들에 내적 갈등들을 해소하고 본인의 내면세계에서 희망이라는 무한한 감정을 품고자 하는 의지를 동시에 나타내고자 함에서 시작된다.

2. 조형적 측면

1) 판화에 있어서의 매체 활용

현대 미술의 표현 방법은 테크놀로지와 결합에 의한 매체의 확대, 즉 다양한 시각매체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표현의 장을 열고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예술이 다양화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현대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판화 작품에도 제작 상 많은 매체들이 사용되고 있다. 매체가 미술의 장속에서 활용되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전 감각적인 자극의 범위까지 미적 체험의 영역을 확장시켜 새로운 미적 체험

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체는 예술의 소통적 측면에서 볼 때 현실과 삶이 접점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에서 출발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사고를 끊임없이 자극했다는 점에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소통과 매체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기술로부터 시작한 판화가 독자적인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시각예술의 혁명을 가져온 사진 기술의 발명 이후다. 20세기 사진의 발명은 회화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되었다.

본인은 복수 매체의 대명사인 판화와 컴퓨터, 사진 등의 뉴미디어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뉴미디어와 전통 판화적 방법의 결합은 새로운 표현의 장을 열어가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본인 작품에 새로운 매체(사진, 컴퓨터 프로세스)를 통한 이미지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판화 작품들은 컴퓨터 출력에 의존한다. 그 중 디지털 프린트는 그 자체로서 완결되기도 하고, 전통 판화 기법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요소는 배경의 효과나 디지털을 이용한 드로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인이 판화제작에 있어 전통적인 판화 기법을 활용하면서 디지털 프린트와 결합하는 것은 판화가 안고 있는 기술적 측면, 재료적 측면, 양식적 측면에서 제한의 극복과 함께 오늘날 하이테크 시대에 어울리는 그림을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현대판화의 컴퓨터 활용은 그림이나 사진의 합성을 통해 이미지 조작과 변형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가지고, 전통 판화에서 얻기 힘든 풍부한 색채는 물론 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인의 작업은 석판화와 컴퓨터의 포토샵을 사용한다. 컴퓨터 판화는 컴퓨터의 기능과 기존의 판화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컴퓨터 프린트는 사진 전사 기법을 이용한 기존의 석판화와 ‘전사된 매체’라는 측면에서 두 매체의 특성은 프로세스 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기에 결합이 용이하다. 디지털 프린트를 활용함에 있어 본인은 종이위에 디지털 이미지를 출력하여 선인장 이미지를 Collagraph를 활용해 두 매체를 결합하기도 하고 석판의 전사 기법을 활용해 잉크로 찍은 작품 위에 컴퓨터 출력의 Air Brush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1], [작품2]는 석판화의 작업과정 위에 선인장의 형상을 직판의 embossing을 활용해 디지털 프린트의 분사 형식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이 방법은 컴퓨터 출력의 기계적 성향이 강한 것 보다 잉크가 분사되어 종이에 흡수되는 것이 마치 수성 물감을 사용해 표현한 것처럼 회화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화면 전체에 프린트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장 개체에만 부분적으로 분사하는 방법이라 정확한 위치에 분사하는 것은 많은 계산적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린트 출력을 하는 것보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색의 표현에 있어서도 잉크젯 출력 방식의 현실 실사가 아닌 잉크의 분사 시 종이에 흡수되는 색이 본인이 생각하는 색과는 다른 결과물이라 여러 횟수의 실험과정에 의해 본인 작품에 적절한 색을 얻을 수 있었다.

[작품3], [작품5], [작품6]은 석판화의 작업에 디지털 프린트를 결합한 것으로 기계의 산출물로 작업한 부분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기계의 산출 방법은 잉크젯 방식으로 컴퓨터 안의 사진 이미지 모습 그대로 현실 실사를 출력하였다.

두 매체의 결합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미지를 표현하는 프로세스 과

정에서 유사점이 있으며 두 기계의 다른 방법의 특수성 있는 산출물은 본인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다면적 분석과 함께 효과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2) 공간

공간은 시간과 함께 물체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형식이고,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은 감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경험적 공간을 말하고 선, 형상과 배경, 색채, 구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공간이다. 회화에서의 공간은 외계 현상의 물리적 공간과 구별되는 것으로 미적 대상으로서의 조형적 공간이며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시각적 이미지로서 표상되는 비현실적인 상상적 공간의 확대인 것이다.⁶⁾ 공간 안에서는 자연과 자아의 내적인 만남을 외형을 화면에 재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 속에 있는 내재적 본질과 감정을 이끌어 내어 마음의 작용인 그림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동향의 조형정신을 구체화시킨다.

인간은 누구나 타자에게 열려 있지 않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상실된 자아를 찾고 이상과 희망을 담아서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 본인의 내적 욕구의 감성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자연의 이미지중 선인장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작품 개체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경험적 공간이 된다. 본인의 작품은 일상적 삶 속에 내재된 공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징된 공간으로 전이되어 본인의 삶을 표현한다.

[작품1], [작품2], [작품3]에서 내부 공간의 벽이나 구조물 등은 본인의 생활공간으로서 자아의 매개체인 선인장은 식물원이 아닌 본인이 창조한

6) 주혜윤, 「자연을 통한 내적 공간 표현」, 이화여대 대학원, 2005, p.11

인위적인 내부 공간에 놓여 있다. 이것은 본인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중심으로 순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선인장을 흙에서가 아닌 본인의 현실 세계에 살아가게 하는 것의 의미는 물질성을 재현 목적이 아닌 낮설고 무기력한 삶 속에서 투쟁하며 스스로의 욕망을 저버리지 못한 채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본인이 내적 욕구를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고자 함이다. 공간속의 선인장들은 유기적인 구조 속에 현실 실사를 통해서 확대, 부각시켜 배치하려고 한다. 이것은 외형적 성질에 의해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3) 색채

작가는 색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의 고유 언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색에 대한 인상은 인간의 심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색채는 화면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같은 형상이라도 주어진 색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색의 사용은 형태와 함께 만날 때 본인의 내적 취향의 효과를 더할 수 있게 해준다.

칸딘스키는 색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색은 일차적인 물리적 자극 외에 더 예민한 심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깊고 강렬하게 자극하여 심리적인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심리적 동요는 연상을 통해서 그에 반응하는 것을 만들어 낸다. 색은 ‘정서(情緒)’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시각적 미를 산출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함께 화면의 표현 형식인 것이다.⁷⁾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궁극적으로 상상력에 의한 표현이며 정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상태를 의식적으로 가시화 시키

7) 칸딘스키의 예술론(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는 것이다. 또한 재현의 색이 아닌 심상적 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경우 이러한 심상적 색채는 감성을 해방시킨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내면의 감정과 외부세계의 연결고리가 된다.

본인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청색조의 무채색으로 표현하였고 초록색과 검정색을 사용하게 된다. 작품의 색 자체에 대한 표현 방법은 주로 신비롭고 알 수 없는 생명력의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대상의 실제 색을 사용하였다. 선인장의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신비로움과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기 위함이다.

푸른색 톤은 심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인간을 무한의 세계로 이끌어 순수에 대한 동경과 드러내는 초감각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인간에게 일깨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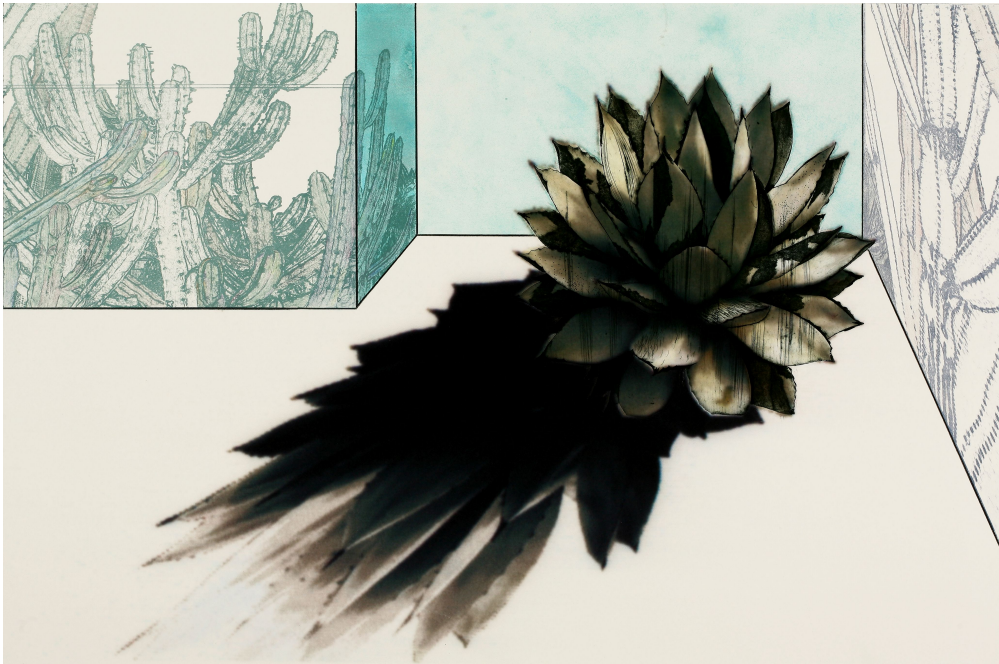
본인이 사용한 초록색의 색채는 대상의 사실적인 색을 표현해 줌으로써 보다 사실적인 선인장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외형적인 것 외에 선인장이 내부에 흐르는 놀라운 적응력과 생명력의 영속성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단순화된 검은 면들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아로서의 강한 욕구를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색의 존재는 내면의 상상에 직접 호소하여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작품 2], [작품 6]의 이미지 색은 생명력과 긍정적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어두운 톤으로 표현하였다.

검정색은 화면속의 흰색과 대비적인 효과뿐 아니라 판화지 위에 찍혀 나오는 효과는 다양하여 흰색과 검정색의 미묘한 조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본인에게 있어서 검정색은 사회가 주는 공허함, 외로운, 소외감의 감정 상태를 상징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제를 집중 확산 시키는데 긴장된 힘을 표현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실 세계의 변화 속에 가치와 혼란을 작품에 반영하며 본인의 이러한 정신적 측면을 어두운 색채를 결합하여 인간 소외의 모습 속에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에 희망을 불어 넣어 본인의 내적 표현을 부각시켜 준다.

3.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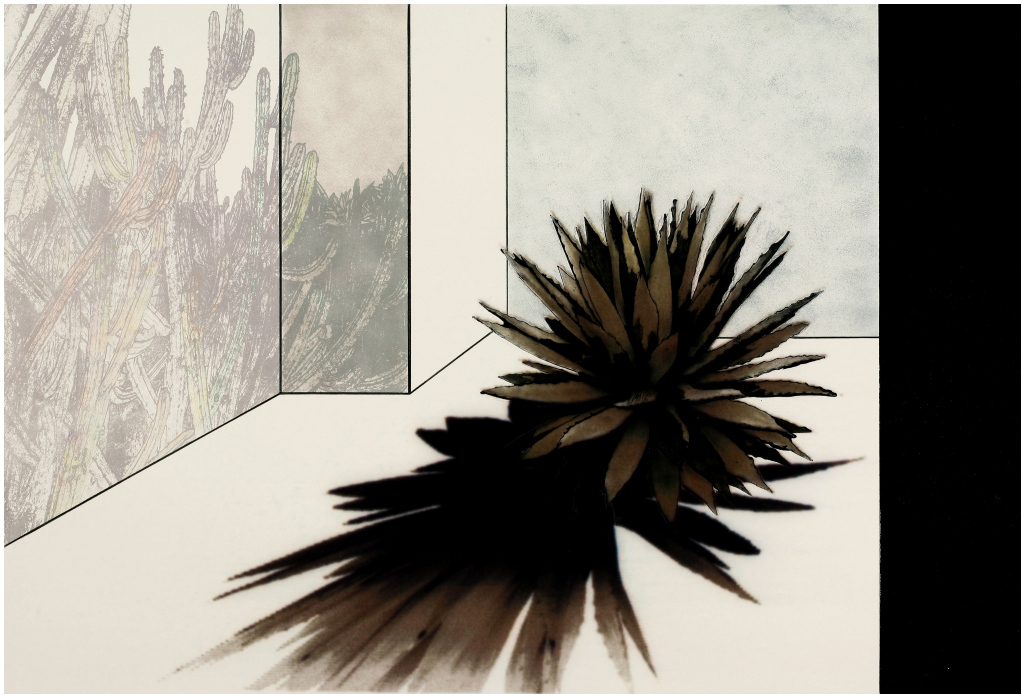
[작품1] Cactus200703, 90 X 55cm,
Lithograph, Collagraph, Digital print, 2007

[작품1]

이 작품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였듯이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일상적 내적 심상을 통한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본인 작품에서 공간이 존재한다.

유기적 구조물로 구성된 공간의 화면을 채우는 것은 나의 삶에 보호막이며 생활공간이다. 그 화면 속에 선인장이 있다. 삶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자아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둥글고 큰 선인장이 보인다. 주제의 이미지가 되는 선인장은 마치 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시가 많고 키가 큰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이지만 이 작품에서 자아가 되는 선인장은 그리 강하게 보이는 선인장은 아니다. 이것은 아직 자아의 미성숙 된, 갖춰지지 않은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선인장 속에는 직선의 스크래치가 그어져 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본인이 겪는 소외와 상실감에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고 사회에서 받은 갈등의 흔적들이다. 이 흔적은 어두운 톤의 그림자로 연결이 되어 진다. 선인장 그림자의 색채는 어두운 톤이지만 점점 밝아지며 실제의 상이 드러나는 것은 본인의 삶에 내재된 생명력 있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 방법으로 선인장의 입체적 표현을 위해 직판의 embossing을 이용하여 형태를 잡아 주었다. 오목 판법으로 흰색 종이 위에 찍힌 선인장의 모습은 프레스의 압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상이 표현되었고 그 위에 분사 형식의 Air Brush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프린트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정적인 상이 아닌 분사를 통해 종이에 직접 적용이 되었을 때 회화적인 부드러움 색채를 표현하였다. 이것은 불완전한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자아를 표출해주는 선인장의 이미지가 더 회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작품 2] Cactus200705, 90X60cm,
Lithograph, Collagraph, Digital print, 2007

[작품 2]

크고 길게 뻗은 선인장은 아니지만 뾰족하게 생긴 둥근 능의 선인장은 [작품 1]과 같은 의도에서 작품을 제작 하였다. 이 작품의 그림자는 또 다른 자아, 무의식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그림자가 실제의 모습으로 뻗어 나온 것은 그 사실성을 통해 본인 삶의 일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이미지에서의 그림자는 어두운 갈색 톤의 색채로 이것은 진보한 삶의 표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과는 다른 그림자로 해석하고 있다. 더 밝으면서 실제 이미지 상이 그대로 나타나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이 작품에서의 그림자는 흑색에 가까운 어두운 톤으로 삶의 억압, 악을 연상하게 하는 상반된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것이 삶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오른쪽에 배치해 있는 검은색 기둥의 떠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색채의 상반된 의미는 선인장의 이미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품 1]에서의 선인장은 활짝 핀 꽃처럼 선인장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느낌을 주지만 이 작품에서 길고 뾰족한 잎들의 선인장은 본인의 부정적인 삶의 내적 자아를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작품 3] Cactus200704, 90 X 60cm,
Lithograph, Digital print, 2007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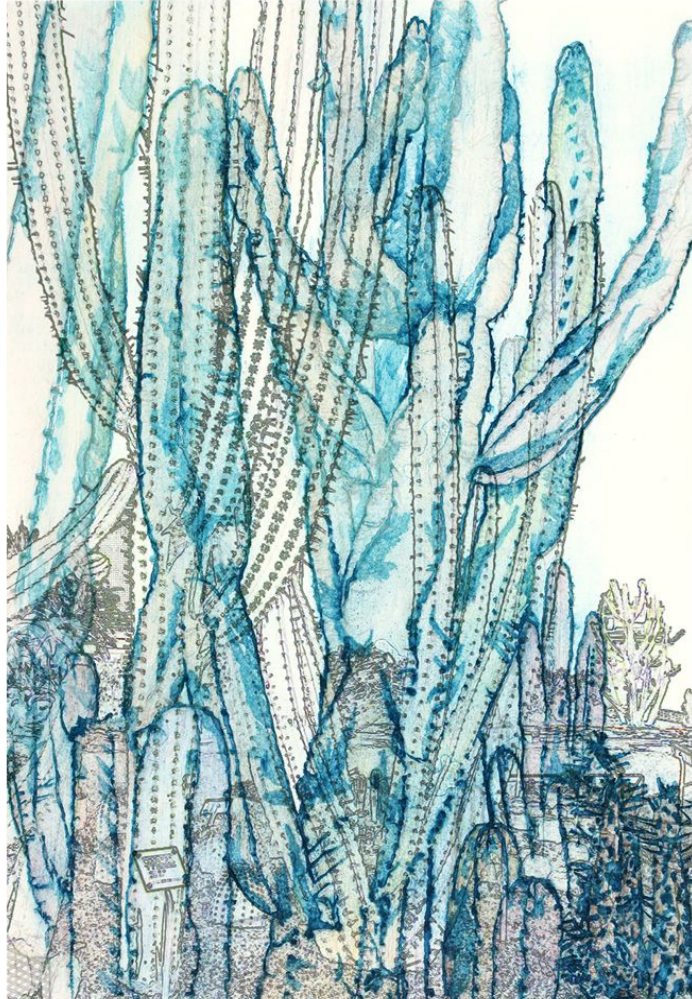
주체의 선인장은 구조물의 기둥과 겹쳐 보인다. 선인장의 이미지를 컴퓨터 포토샵 작업 시 Opacity를 설정해 입체적인 형상보다 배경과 겹쳐 보이게 되면서 평면에 가까운 형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본인이 일상적 삶을 인식할 수 있는 객체로서 존재하지만 그것을 지나쳐 버리거나 의식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디지털 프린트의 선인장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왼쪽에 우뚝 서 있다. 이 작품의 조형적 요소인 배치는 화면의 왼쪽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대칭 구조를 이루는 인체 구조로 심장이나 왼쪽 뇌의 발달 등 생명의 힘이 왼쪽에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색채에 있어서도 배경과 선인장의 이미지는 어두운 색이 아닌 파스텔 계열과 현실 실사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생명력과 이상적인 삶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는 이미지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림자를 망각하는 경우는 강렬한 정오의 햇빛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나 아니면 강렬한 심리적 상태에 빠져 현실 감각을 상실할 때이다. 본인의 삶 또한 공허함과 일상의 지루한 반복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망각해 버렸다. 그래서 [작품 3] 에서의 그림자 역할은 단지 어두운 톤의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똑같은 이미지 상을 보여줌으로서 본인은 이런 일상 속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꿈을 표현한다.

그리고 자아를 표현한 우뚝 선 선인장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선인장의 정상부분이 화면상에 잘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자아의 모습이기도 하다.



[작품 4] Cactus200701, 60X90cm,
Collagraph, Digital print, 2007

[작품 4]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그 안에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중심이 되어 순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하는 욕구를 선인장을 통해 전체 화면 속에 확대,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크고 길쭉한 선인장들은 온전한 형상이 아닌 화면 속에서 잘려져 있다. 이것은 현대의 과열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 하는 욕구와 물질만능주의에 이끌려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본인의 모습이다.

이 작품의 표현 방법은 본인이 찍은 사진 이미지들을 컴퓨터 안에서 재탄생시켜 그 이미지 위에 직판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디지털 프린트의 사실적인 표현의 정서에 비해 화면의 평면에 대한 극복과 이미지의 상징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경의 이미지는 컴퓨터 작업 시 명암 대비를 강하게 사용하여 이미지 형태에 중점을 두었다. 배경 보다는 직판의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프린트를 통해 표현되는 일상적 삶의 배경은 선인장의 이름표 구조물까지 그대로 보아진다. 이것은 본인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직판의 형상이 내적 자아를 표현하는 대상의 이미지이다.

두 매체의 이미지를 겹쳐 표현함으로써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 불완전한 삶이 현실이긴 하지만 푸른색을 통하여 본인 삶의 생명력 있는 희망을 꿈꾸게 한다.



[작품 5] Cactus200702, 180 x 54cm,
Lithograph, Digital print, 2007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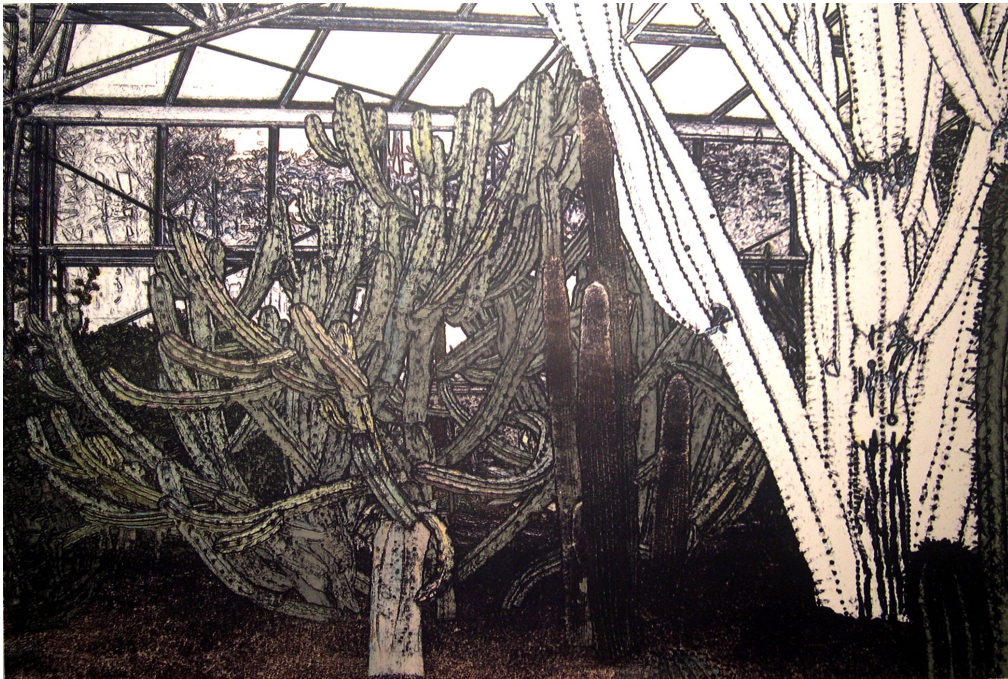
서부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기둥 선인장의 무리는 키가 많이 크고 특유의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 선인장으로 표현된다. 이 작품에서는 선인장 하나의 개체가 아닌 산림으로 우거진 선인장의 모습들이 표현된다. 자아를 표현하는 하나의 개체가 아닌 현실 세계를 보는 나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색의 표현에 있어서 어두운 톤의 무채색이다. 화면을 덮는 검정색은 어둡지만 본인은 반대로 고뇌에 찬 현대인을 본인의 눈에 비춰진 현실과 각종 사회적 갈등에 본인 또한 간혀 있는 억압된 것을 어두움을 통해 밝고 희망을 가진 생명체로 의미를 둔다.

본인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인식은 화면 속에 비춰진 선인장의 가지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꿈과 희망은 선인장의 가지들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희망적인 색채들로 채워진다.

화면의 전체 공간은 흑·백의 모노톤으로 나뉘었는데 양쪽의 키가 큰 기둥 선인장은 구도 상 거대함을 표현하였다. 흰색 배경의 검은색 잉크를 사용해 찍은 것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화면 속에 이어지는 선인장의 라인은 선인장의 신비로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검정색은 그 자체는 어두움이지만 작품 화면속의 색은 단지 물질이 아닌 종이 위에 살아 숨 쉬는 리듬감 있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조형적 측면으로 두 매체의 결합 방식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있어 겹쳐 표현한다는 것이 그 의미를 같이 하며 석판의 전사 기법은 사진 이미지를 전사하는 것이 디지털 매체와 흡사하여 표현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작품 6] Cactus200717, 90 X 60cm,
Lithograph, Digital print, 2007

[작품 6]

화면에 식물원의 구조물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현실 세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키가 크고 산림처럼 우거져 복잡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 중 화면의 오른쪽에 비워져 있는 선인장은 확연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체 일상을 통해 느껴지길 바라는 감춰진 생명력이다. 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선인장의 형태만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흑·백의 모노톤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것은 내적 자아를 표현함에 있어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이 작품 역시 두 매체의 결합이다. 하지만 여러 작품들과는 달리 석판 전사 작업 위에 디지털 프린트를 한 제작 순서가 다른 작품이다.

본인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대부분 디지털 프린트 위에 다른 매체들을 결합하여 표현했지만 직접적인 판화 기법 위에 디지털 프린트를 결합함으로써 판을 제작하여 생성한 톤이 아닌 사진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의 톤의 결합이 또 다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판에 의해 생성되는 색의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인은 작품 제작 시 석판 전사 기법은 작품 형태의 선들만 표현하고 디지털 프린트를 통해 작품의 색 톤들을 생성하였다. 이것은 판의 기술적인 측면의 극복이기도 하지만 현실 실사를 통해 작품에 감정 이입을 시키는 것은 본인의 삶이 환원되는 의미이기도 하다.



[작품 7] Cactus200508, 90X60cm,
Collagraph, 2005



[작품 8] Cactus2005010, 60X90cm,
Collagraph, Chinecolle, 2005



[작품 9] Cactus2006007, 90 X 60cm,
Collagraph, Digital print, 2005

[작품7], [작품8], [작품9]

이 작품들은 선인장을 주제의 매개체로 하는 초기의 작품들이다. 석사학위 청구전 작품들과는 조금의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선인장 형상들을 직판을 활용해 잘라주게 함으로써 작품화면에는 크게 선인장과 흰 여백이 보여준다. 선인장은 하나의 개체가 아닌 모아있는 모습으로 본인의 일상 주변 환경을 표현한다.

선인장 이미지의 표현 방법으로 플라그래피 판화를 활용하였다. 이 판법은 직판을 손으로 뜯어내거나 여러 재료들을 붙이면서 각층마다 물감이 쌓여 마티에르 효과를 표현함으로써 다차원의 공간 효과를 보여준다. 프레스기의 압력에 의해 종이에 찍혔을 때 종이 표면의 촉각적인 공간과 함께 물질과 신체 흔적과의 만남을 통해 선인장 이미지는 자연스러운 형상을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화면 속 흰색 이미지는 컴퓨터를 활용해 변형,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곤충 같지도 않고 사람의 형상도 아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겪는 감성들에 숨어 지내는 자아를 의미한다. [작품9]에서 형상이 실제 이미지들의 합성으로 보이는 것은 현실 삶에서 경쟁하고 투쟁하며 살아가기 위한 자아 모습을 표현한다.

선인장 이미지는 직판을 잘라 화면의 단절을 보여준 것은 현실 세계와 외적 세계를 구분해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외적 세계의 자유로운 이상을 꿈꾸는 공간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Ⅲ. 결 론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으며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회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반복적인 일상 안에서 자아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바탕으로 본인의 일상적 내적 갈등을 선인장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본인 작품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그 결과 본인의 일상적 삶의 영역을 분석하여 본인의 정체성과 내적 심리를 분석할 수 있었다.

과학과 기술 분야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 영역은 물론 예술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각 장르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양한 매체와 혼합시켜 다각적 시각의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 방법으로 디지털 매체와 전통 판화 기법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조형 요소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전통 판화가 내재하고 있는 판의 직접성의 존재 가치와 함께 디지털 매체들의 특성들로 하여금 대상들을 사실성 있게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기계의 특수성에 따라 다른 효과의 산출물을 통하여 본인 작업에 수용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결과를 가져 주었다.

그러나 사진을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의 표현에서 직접 붓이나 펜으로 그리거나 굵어서 나타나는 생생하고 힘찬 느낌의 표현이 드러나기가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석판에서 이루어지는 표

현은 사진 이미지를 전사하는 프로세스에서 떠나 실제적으로 그러서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삶의 욕구로서의 선인장의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절제된 색 속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색채와 움직임을 형성하는 흔적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본인 자아의 내적 성찰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 진행에 있어 표현 영역 발전을 모색해 본다.

참 고 문 헌

- 서성록, 「동·서양 미술의 지평」, 도서출판 재원, 1999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인간과 자연」, 서울:서광사, 1995
- 칸딘스키의 예술론,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 나카노 하지무, 「공간과 인간」, 최재석 역, 도서출판국제, 1999
- 김광명, 「예술에 대한 사색」, 학연문화사
- 김복영, 「현대 공간의 조형물」, 홍익 미술 3호, 1974
-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서울:이카넷, 2003
- 육명심, 「현대 사진과 미술의 연관성」, 서울예전, 1988
- 이토우 도시하루, 「사진과 회화」, 김경언 역, 시각과 언어, 2000

<석사논문>

- 정혜진, 「자연의 단순화와 반복성을 통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7
- 주혜윤, 「자연을 통한 내적 공간 표현」, 이화여대 대학원, 2005
- 하현정, 「동서양 회화에서이 자연관에 따른 표현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6
- 정영민, 「다층적 색채구조를 통한 내면세계 표현연구」,
홍익대 대학원, 1998

ABSTRACT

The Self expression of study through the symbolic
image of a Catus

- Focused on My Works -

Kim, Mi-young

Departe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what tried to analyze work contents and expression form logically centering around the works exhibited before applying for master's degree out of a series of works manufactured from 2005 to 2007 when I was in the course of graduate school.

As nature is the base of life of human being, it had absolute influence on art directly and indirectly. As human being is a part of nature and he(or she) is an existence who cannot live by being separated from nature, he(or she) live, reacting on nature and recognizing self-existence every time. I understand gigantic universe principle from nature and feel life standard and the impression for

feeling of vitality. And, these became the basic background of my work.

Moderns experience emotional deficiency and human alienation phenomenon, while they have desire for material achievement and live in excessive competition to be caused by it. I tried to express human alienation and trouble to get to experience in modern society and self-consciousness of myself through symbolical expression for form feature and meaning that cactus has out of plants.

Today, fine art expanded expression method, absorbing ultramodern media, through rapid technology development by science civilization. Domain of woodcut is being expanded, diversifying the expression method through the method of combination with ultramodern media like computer.

Thus, I tried to explore new expression possibility by utilizing modern media by digital expression method positively in the expression method of work and combining traditional woodcut method at the same time.

I sought new plastic effect which cannot be discovered in each method by accepting plastic feature that two media have and digital expression method in my work positively in the course of progression in trying combination between media of lithograph and digital print method.

I think that cactus has symbolical nature as material to be very suitable for expressing my inner mental state that I experienced in

the environment of big city by meaning that it has intense botanical feature for existence in barren natural environment and external form. And, for this expression, I tried to express chaos and despair that I feel in actual world and meaning for existence value at the same time through strange combination with whole monotone of black and white, transformed space, and cactus.